



주 제:	“주님 사랑”	“부활 제 3주일”	2009년 4월 26일
복음 묵상:	[루가 24,35-48]	[사도 3,13-15.17-19]	[1 요한 2,1-5 7]

화창한 봄날씨, 밝은 햇빛과 맑은 바람속에 꽃비가 흩날린다. 봄은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혼자서 이 좋은 날 걸노라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 비로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래서인지 봄에는 사람을 기억하는 날들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사랑스럽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위한 날을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봄은 이미 충분히 사랑으로 충만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흥풍과도 같은 친절한 사랑이었다. 사랑이 깊을수록 소망이 단순해진다 했던가. 다른 말씀보다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다. 때로 어머니라는 소리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슴은 젖어든다. 그 영원한 그리움, 그리고 애뜻함에 가슴이 저려온다. “내 어머니의 꿈은 자식뿐이었습니다.”

그 꿈을 나는 사는가? 가슴으로 맞아들여 내 삶을 바꾸어 가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은 바로 희생으로 바쳐진 사랑의 증인이라는 뜻이다.
 “나의 인간성으로 너희는 살아라.”

살아나신 주님의 바라심,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아들, 딸의 삶을 살면서 깨달아야 할 우리들 모두의 숙명적 과제이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인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삶인 것이다.

이제 주님과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꿈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 삶속에 사랑하는 나의 사람 그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퍼기 위해 감싸고 사랑은 나누기 위하여 머무는 것이기에 그 분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당부하신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며 우리도 누추한 내 삶의 꿈이오나 따스하오니 내 마음의 집에 사랑하는 이들과 내 관심과 나눔과 용서가 필요한 이들이 머물게 해달라는 가난한 기도를 드린다. 이 좋은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오늘을 바쳐 두 손 모으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평소 드리지 않는 기도를 드려본다.

(인천 이민주 신부님 강론에서)



◆ 예언 말씀.

† 나의 자녀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빛입니다. 제 이름은 사랑입니다. 저의 이름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들이 좋으시다면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 갈등, 좌절을 버리고 저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둠에 빛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꺾인 마음에 희망이 되어 주고, 용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로 와 머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희망을, 사랑을, 평화를 드리겠습니다.

† 사랑하는 아이들아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른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위로를 내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참된 평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내가 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것이다.

†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안에 큰 기쁨과 사랑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1분 명상

♡무지개색 내 마음♡

좋은글중에서...

빨간색 띠는 내 마음에 열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들과 함께 행복하라고 재촉합니다.



초록색 띠는 내 마음에 섬터를 마련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보고 느끼면서
천천히 가볍게 걸으라 합니다.
여유와 여백의 기쁨이고 힘이 곧 힘이라고 말합니다.

주황색 띠는 내 마음에 인내를 가르칩니다.
오늘이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기다림으로
내일의 기쁨을 찾아가는 길목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색 띠는 내 마음에 겸손의 자리를 껍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외롭고 위험하지만
남을 섬기고 겸손해 지는 것은 즐겁고 안전하다며
낮은 곳에 자리를 펴고 앉으라 합니다.

파란색 띠는 내 마음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고 문득 허무할 때도 있지만
내일의 그림은 늘 밝고 아름답게 그리자고 합니다.

노란색 띠는 내 마음에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이므로
평화를 얻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고 속삭입니다.

보라색 띠는 내 마음에 사랑의 단비를 내립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랑의 빗줄기로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2 테살 3,5).